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구조 및 소득

김복순*

I. 머리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의 고용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의 질 또한 개선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3년 48.1%로 OECD회원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빈곤율은 70%를 넘고 있어 노인빈곤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노인의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해 본다면 실업으로 인한 빈곤 외에도 일자리의 질이 낮은 곳에 취업한 일하는 노인빈곤층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불평등도 또한 높은 게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이들이 얻은 새로운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경력)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고, 노인 일자리의 질을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노인 최하위 소득층과 최상위 소득층 간의 소득점유율과 소득10분위배율을 통해 소득격차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노인빈곤율과 노인 인구 내부의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고 하겠다.¹⁾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1) 본고에서 다루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소득분배 가구원」 마이크로 데이터틀을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전체 가구)으로 분석한 것이다.

Ⅱ.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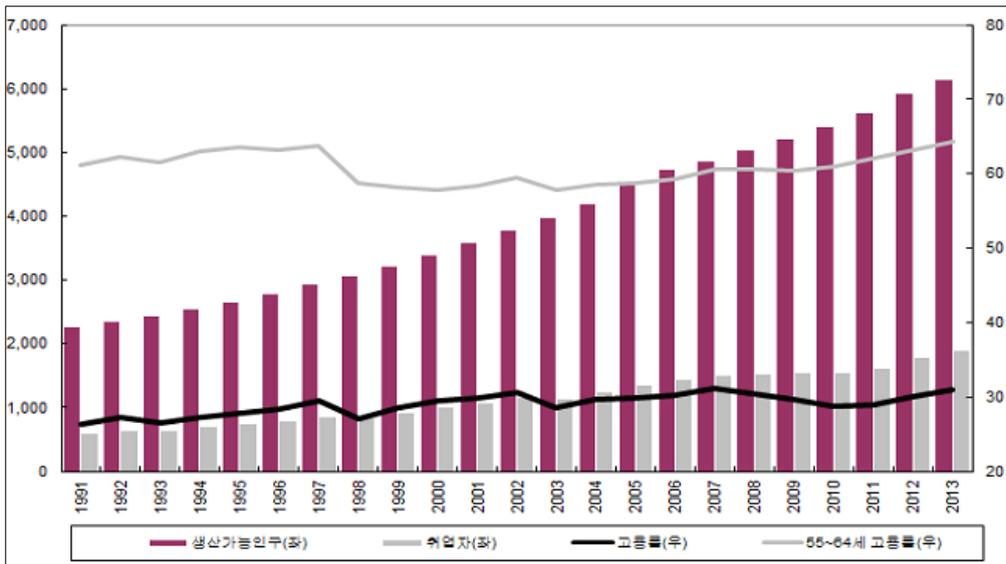
1.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구조와 고용형태별 변화

2013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는 25,066천 명으로 고용률은 전년대비 0.1%p 상승한 59.5%를 기록하였다. 20세 미만, 20대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연령층(이하 노인)에서도 전년대비 0.8%p 상승하였다. 특히 55~64세 연령층에서의 고용률은 전년대비 1.2%p 상승하는 등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의 고용률은 최근 2010년 저점을 찍은 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31.4%를 기록하면서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29.4%까지 하락한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국제 금융위기 전후 4%를 넘던 이들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13년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65세 이상 노인의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고용률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노인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용직 중심의 임금근로자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는 임시직 증가속도가 상용직을 상회하면서 임시직이 전년대비 6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2009년 30%를 넘어선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자영업 비중은

〈표 1〉 65세 이상 노인 생산가능인구 증감, 취업자 증감, 고용률 추이

(단위: 천 명, %)

		1997	1998	2003	200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가능 인구 증감	전 체	577	496	377	377	428	495	498	462	530	514
	65세 이상	136	141	205	207	167	166	195	225	306	215
	55~64세	118	83	98	88	101	201	268	292	282	257
	65~79세	111	121	190	177	154	91	109	190	249	166
취업자 증감	전 체	361	-1,276	-30	418	145	-72	323	415	437	386
	65세 이상	70	-32	-14	102	15	17	4	74	160	115
	55~64세	93	-136	-12	80	62	110	187	245	229	231
	65~79세	67	-30	-17	93	22	11	5	58	141	113
고용률	전 체	60.9	56.4	59.3	59.8	59.5	58.6	58.7	59.1	59.4	59.5
	65세 이상	29.5	27.1	28.6	29.6	30.3	29.7	28.7	28.9	30.1	30.9
	55~64세	63.8	58.7	57.8	58.5	60.6	60.4	60.9	62.1	63.1	64.3
	65~79세	33.4	30.7	32.0	33.1	34.1	33.7	33.0	32.9	34.1	35.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1997	1998	2003	200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고용 규모	전 체	864	832	1,141	1,243	1,529	1,546	1,550	1,624	1,784	1,898
	임금근로자	218	190	295	338	505	583	615	662	733	815
	상용직	40	31	29	40	73	91	126	148	174	198
	임시직	88	87	129	145	251	318	317	320	365	428
	일용직	90	73	137	153	181	174	173	194	194	190
	비임금근로자	646	642	846	905	1,023	963	935	962	1,051	1,08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6	22	37	44	57	52	47	54	69	6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66	452	625	672	762	716	706	724	775	815
	무급가족종사자	155	169	185	189	205	195	181	184	207	202
취업자 비중	임금근로자 비중	25.2	22.8	25.8	27.2	33.1	37.7	39.7	40.8	41.1	42.9
	상용직 비중	4.7	3.7	2.6	3.2	4.8	5.9	8.1	9.1	9.7	10.4
	임시·일용직 비중	20.6	19.1	23.3	24.0	28.3	31.8	31.6	31.6	31.4	32.5
	비임금근로자 비중	74.8	77.2	74.2	72.8	66.9	62.3	60.3	59.2	58.9	57.1
	자영업자 비중	56.8	56.9	58.0	57.6	53.5	49.7	48.6	47.9	47.3	46.4
	(전체 자영업자 비중)	27.8	28.2	27.3	27.1	25.3	24.3	23.5	23.1	23.2	2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 10명 중 약 5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결과로 2013년 전체 취업자의 22.5%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3년에 비해 4.8%p 감소한 것이다. 특히 노인의 자영업 비중은 동기간 11.6%p 감소함으로써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 증가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2004년 53.9%에 달했던 농림어업의 비중이 2013년에는 16.8%p 감소한 37.1%를 기록하면서 노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농림어업과 더불어 도소매업,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만 취업자 비중이 2004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²⁾ 한편 노인 취업자의 서비스업 비중은 2013년 54.8%로 2004년에 비해 16.5%p 증가하였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2%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3.8%p,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노인 취업자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1,040천 명으로 처음으로 백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표 3〉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 및 자영업자의 산업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취 업 자	농림어업	53.9	52.6	50.2	47.0	46.6	44.3	42.1	41.0	38.4	37.1
	건설업	2.2	2.4	2.2	2.4	2.0	2.0	2.2	2.2	2.7	3.2
	제조업	5.4	4.9	5.1	5.4	5.9	5.0	5.4	5.8	5.4	4.8
	서비스업	38.3	39.9	42.4	45.2	45.4	48.6	50.3	50.9	53.5	54.8
	도소매업	14.7	14.5	14.8	15.2	14.8	13.7	13.7	14.6	15.4	14.0
	운수업	2.2	2.7	2.7	2.3	2.6	3.4	4.5	4.7	4.9	5.3
	음식·숙박업	3.5	3.2	2.7	3.4	4.1	3.6	3.2	3.0	3.6	3.9
	사업시설, 사업지원서비스업	4.9	4.8	5.6	6.6	6.4	6.2	7.0	7.8	8.4	8.6
	협회, 기타 개인서비스업	3.5	4.2	4.6	4.6	4.4	3.5	3.9	4.0	4.2	4.0
자 영 업 자	서비스업	31.6	31.8	32.4	33.7	34.5	33.8	34.7	35.5	38.4	38.8
	도소매업	18.2	17.4	17.4	17.5	17.0	16.5	16.0	16.1	17.7	16.4
	운수업	2.7	3.1	3.3	2.8	3.6	5.5	7.1	7.0	7.9	9.0
	음식·숙박업	2.5	2.6	2.4	3.4	3.9	3.3	2.9	3.1	3.5	4.1
	협회, 기타 개인서비스업	3.7	4.6	5.3	5.5	4.9	4.0	4.2	4.5	4.4	4.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이들 산업의 노인 취업자 수는 2003년에 비해 농림어업 34천 명, 제조업 25천 명, 도소매업 83천 명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의 자영업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인 취업자의 절반가량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림어업이 5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38.8%), 제조업(2.8%)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영업 비중은 감소세이지만 규모는 2004년 대비 165천 명 증가했으며,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에서 증가하였다.

〈표 4〉 65세 이상 노인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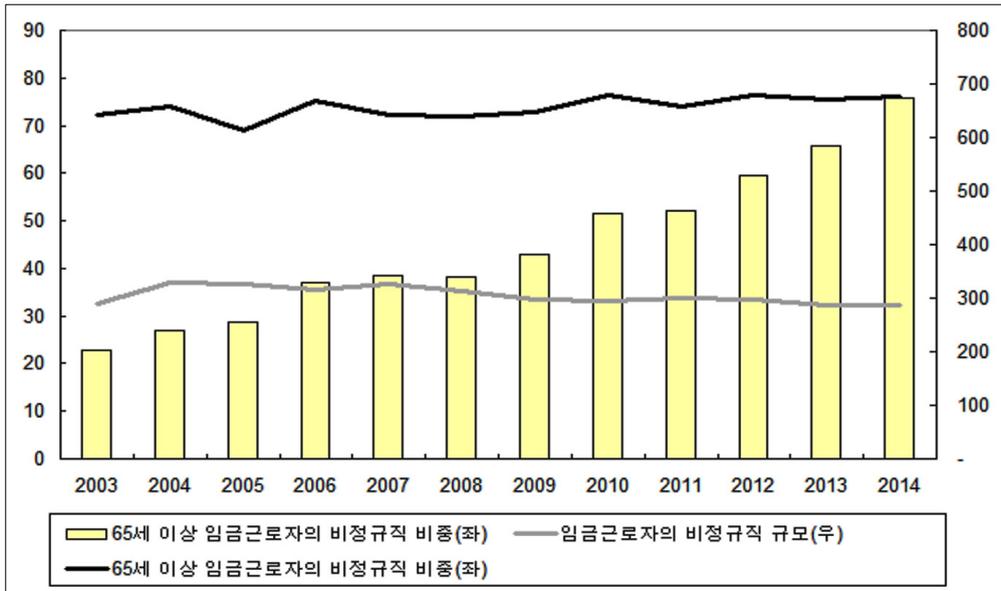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280	323	369	437	474	474	525	597	628	694	773	885
비정규	202	239	255	329	342	340	382	457	464	529	583	674
(비정규 비중)	72.1	73.9	69.1	75.2	72.1	71.8	72.8	76.5	73.9	76.3	75.5	76.1
한시적 근로	118	139	148	199	181	179	215	297	273	325	378	441
비전형 근로	105	133	123	161	208	185	187	190	218	250	265	270
시간제 근로	58	70	80	112	107	130	175	236	226	277	318	392
(순수시간제)	11	13	23	22	20	37	44	50	61	69	76	99

주: 순수시간제는 한시적 근로나 비전형 근로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정규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65세 이상 노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 및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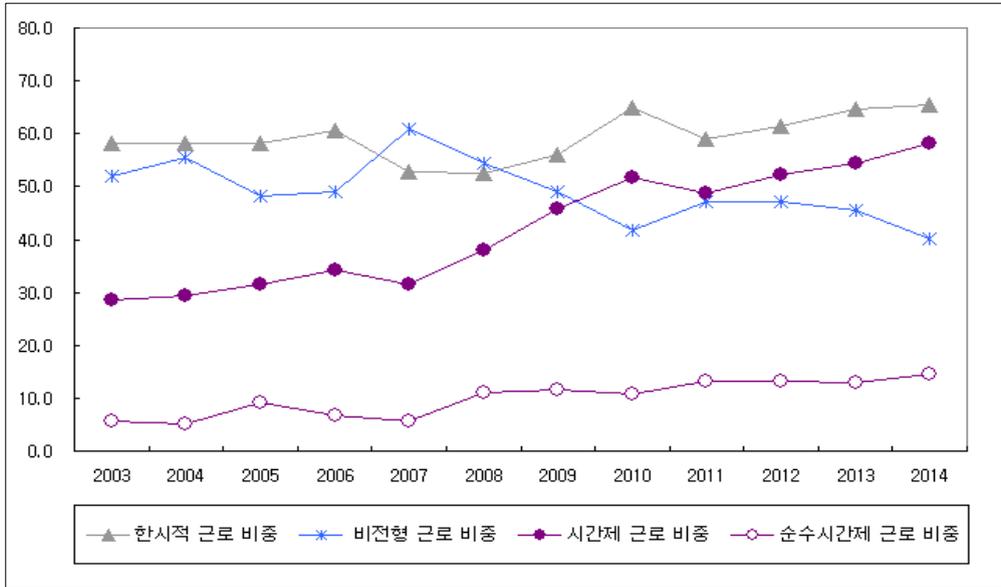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65세 이상 노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



주: 노인의 비정규 고용형태별 비중은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보면, 2013년 비정규직 비중은 76.1%로 전년대비 0.6%p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전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전년대비 0.2%p 감소한 32.1%를 기록하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노인의 비정규직 비중은 추세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와 비전형 근로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 근로는 2013년 현재 58.2%로 국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 비해 20.1%p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고용이 부진했던 2009년 이후 시간제 근로 비중은 비전형 근로를 역전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순수시간제는 2013년 전년대비 30.5% 증가한 99천 명으로 나타났다.

2. 65세 이상 노인의 최근 일자리와 주된 경력과의 관련성 및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고용구조는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비중이 더 높고, 비정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연령층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노력의 결과로 얻은 새 일자리가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쌓은 주된 일자리(경력)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만 55~79세 부가조사(5월)』 자료에 의하면 65~79세 연령층의 2014년 현재 경제활동상태는 일을 하고 있는 ‘취업상태’가 38.3%, ‘미취업상태’가 61.7%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중에서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고령층의 비중은 감소하는데, 일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비중은 90.7%로 증가하고 있다. 취업 경험이 있는 노인이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한 경우가 많았다.

노인(65~79세)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구직활동 횟수를 보면, 노인의 12.9%가 1년간 구직활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며, 이들 비중은 2007년 7.5%에 비해 5.4%p 증가하여 노인의 구직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46.3%가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취업을 경험했으며, 이들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³⁾

그렇다면 새롭게 취업한 일자리가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쌓은 경력(=생애 주된 일, 경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까?. 취업 경험이 있는 노인의 53.4%가 주된 경력과 매우 관련 있는 일자리에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주된 경력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별로 관련이 없는 일자리에 취업했던 비중이 2014년 35.3%로 2007년에 비해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있는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새 일자리를 선택할 때 ‘일의 양과 시간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일자리를 선택할 때 ‘임금수준’과 ‘계속근로 가능성’이 주요한 고려사항이었으나 최근에는 ‘일의 양과 시간대’를 고려해서 새 일자리를 찾겠다는 노인이 늘고 있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65세 이상 노인의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이 ‘임금수준’보다는 ‘일의 내용(사무직/생산직 등)’,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로 취업 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생애 주된 일자리(경력)와 관련성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3)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31.4%로 전년대비 0.6%p 상승했으며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표 5〉 노인(65~79세)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취업경험, 새 일자리와 주된 경력과의 연관성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구직활동 경험 있음		7.5	7.6	8.5	12.6	12.2	12.6	11.7	12.9
취업 경험 있음		43.6	42.6	42.3	46.1	44.2	45.1	46.2	46.3
지난 1년간 취업한 일자리 의 주된 경력 과의 연관성	전혀 관련 없음	15.8	18.1	19.1	22.0	22.0	22.7	23.1	22.5
	별로 관련 없음	11.1	9.6	10.2	11.4	11.0	11.3	11.1	12.8
	약간 관련 있음	8.4	8.5	8.8	9.2	8.2	8.4	8.3	11.3
	매우 관련 있음	64.6	63.8	62.0	57.4	58.7	57.5	57.6	53.4
장래 근로 희망 비중		42.7	41.7	41.8	44.5	41.6	42.7	43.7	45.0
새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	임금수준	40.7	50.6	34.1	27.7	22.6	23.6	19.1	16.9
	일의 양과 시간대	16.9	15.6	22.0	26.2	27.9	29.4	32.7	36.3
	일의 내용	8.6	6.1	8.2	8.4	10.8	10.4	11.9	12.4
	출퇴근거리 등 편리성	4.6	3.6	3.9	4.1	4.7	5.4	6.0	6.0
	계속근로 가능성	18.5	13.9	20.8	22.3	20.5	19.6	17.7	16.8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	8.8	8.3	9.6	9.8	11.0	9.8	11.4	10.5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는 55~79세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만 55~79세 부가조사(5월)』 원자료, 각 연도.

Ⅲ.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 및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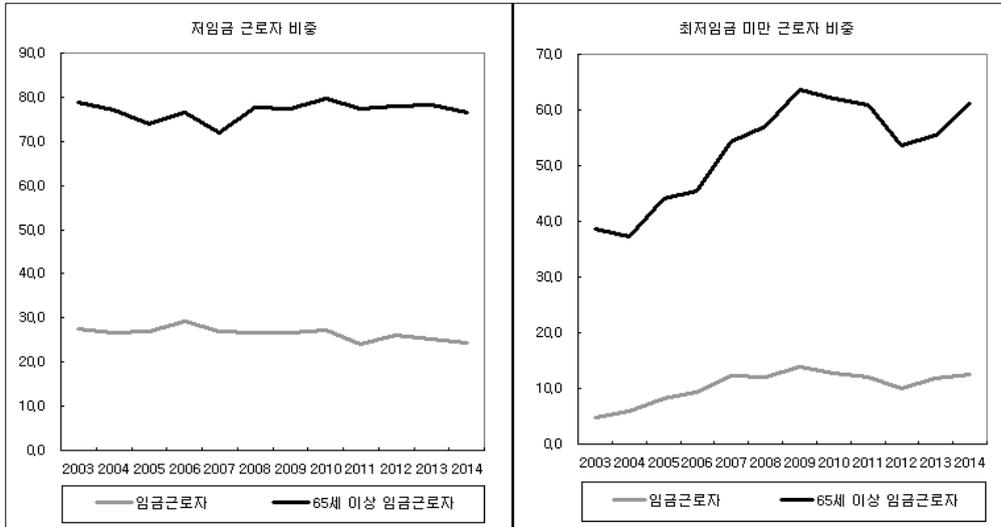
1.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과 저임금 비중

노인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014년 6,247천 원으로 전년대비 4.4% 상승하였다. 이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2014년에는 소폭 좁혀져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70.3%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의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노인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4년 76.5%로 경제 전체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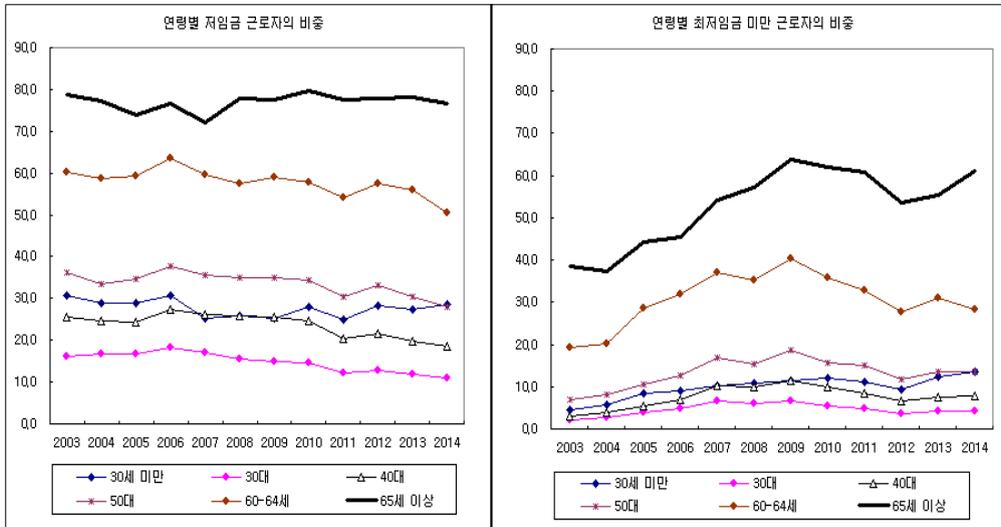
4) 저임금근로자는 시간당 평균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연령별 저임금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부표 1>과 <부표 2>를 참조.

(그림 4) 65세 이상 노인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저임금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령별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4년 현재 76.5%로 전년대비 1.8%p 하락했으나 여전히 70%가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전년대비 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64세 연령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빈곤

노인의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은 2013년 현재 1,140천 원으로 2006~2013년 기간 동안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의 하락폭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의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동기간 동안 각각 4.2%, 6.7% 증가하였다.⁵⁾

노인의 특성상 균등화된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이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인 1인가구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006년 21.3%에서 2013년 34.7%로 증가하였고, 동기간 연평균은 6.0% 증가하였다.

<표 7>은 노인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10분위별 평균소득이다. 소득하위 10%의 평균소득은 2006~20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4.0% 하락한 반면, 소득상위 10%의 평균소득은 동기간 연평균 0.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소득상위 10%와 소득하위

<표 6>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 추이

(단위: 천 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06~'13)
65세 이상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1,215	1,093	1,104	1,045	1,094	1,092	1,158	1,140	-0.9
	균등화된 근로소득	467	422	424	410	446	433	497	466	-0.0
	균등화된 재산소득	31	37	32	30	29	29	36	41	4.2
	균등화된 공적이전소득	178	177	189	219	234	242	256	280	6.7
65세 이상 1인 가구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759	677	679	589	611	614	644	699	-1.2
	균등화된 근로소득	99	76	84	68	103	105	109	107	1.1
	균등화된 재산소득	13	13	13	10	15	11	23	39	17.4
	균등화된 공적이전소득	161	136	156	191	217	223	223	243	6.0

주: 1)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2) 균등화된 소득=소득×균등화지수.

3)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5)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가구원』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7〉 65세 이상 노인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10분위별 평균소득 및 10분위배율

(단위: 천 원)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10분위배율
2006	215	407	537	665	813	987	1,216	1,528	1,926	3,187	14.85 (12.88)
2007	173	350	476	617	766	931	1,138	1,399	1,794	3,025	17.44 (13.47)
2008	165	363	479	605	758	943	1,168	1,439	1,854	3,035	18.38 (12.22)
2009	131	330	461	579	726	894	1,086	1,337	1,703	2,826	21.57 (17.19)
2010	148	351	474	592	751	925	1,125	1,416	1,835	2,980	20.14 (27.33)
2011	142	331	451	590	761	940	1,175	1,491	1,983	3,225	22.73 (23.15)
2012	145	333	466	607	791	997	1,240	1,580	2,068	3,695	25.40 (27.47)
2013	162	347	475	610	787	972	1,185	1,499	2,008	3,272	20.23 (23.66)

주: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함.

()안은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의 10분위배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10%의 소득10분위배율은 2006년 14.85배에서 2013년 20.23배로 확대되어 65세 이상 연령층 내에서 최하소득층과 최고소득층 간에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소득10분위배율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의 소득하위10%와 소득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보면, 최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2006년 2.5%에서 2013년 1.9%로 감소한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동기간 21.8%에서 24.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최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2006년 2.2%에서 2013년 1.3%로 하락한 반면, 최고소득층(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동기간 28.5%에서 31.5%로 상승하여 노인 1인가구의 소득불평등이 65세 이상 노인 전체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노인 1인가구의 소득점유율과 소득10분위배율을 통해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 간에 소득격차가 존재하며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노인과 노인 1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나라 전체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14.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8.1%로 나타나 노인의 거의 절반이 소득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74.0%로 나타나 노인 빈곤이 노인 1인가구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수준이 빈곤선 미만인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의 50%이다.

〈표 8〉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10분위별 소득점유율 추이

(단위 : %)

		1	2	3	4	5	6	7	8	9	10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65세 이상	2006	2.5	4.4	5.7	7.1	8.2	9.2	11.7	13.8	15.8	21.8
	2007	2.2	4.2	5.6	7.6	8.0	9.6	11.0	12.6	14.9	24.3
	2008	2.0	4.5	5.7	6.3	8.3	10.0	11.3	12.9	15.1	23.8
	2009	1.6	4.4	5.8	7.1	8.4	9.5	11.8	12.9	14.8	23.8
	2010	1.9	4.2	5.9	7.0	8.7	9.8	11.5	12.7	15.6	22.7
	2011	1.8	3.9	5.4	7.2	8.6	9.6	12.1	13.6	16.9	21.0
	2012	1.7	4.0	5.2	7.0	8.8	9.8	11.2	12.9	15.5	23.9
65세 이상 1인가구	2006	1.9	4.0	5.5	6.7	8.6	8.9	10.9	12.5	16.2	24.9
	2007	2.2	4.0	5.1	6.0	7.1	8.4	9.9	12.4	16.3	28.5
	2008	2.0	4.2	5.2	6.1	7.3	8.6	10.1	12.1	16.1	28.2
	2009	2.2	4.1	5.2	6.3	7.4	8.4	9.8	13.8	16.0	26.8
	2010	1.5	3.8	5.4	6.6	7.7	8.8	10.1	13.0	16.2	26.9
	2011	1.0	3.6	5.1	6.5	7.5	7.9	10.2	12.7	16.8	28.8
	2012	1.2	3.6	4.9	5.8	7.4	8.4	10.3	12.9	16.8	28.6
65세 이상 1인가구	2012	1.1	3.5	4.7	5.9	7.0	8.0	10.2	12.2	16.1	31.4
	2013	1.3	3.4	4.7	5.8	6.7	7.9	9.8	12.7	16.2	31.5

주 :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또한 빈곤선 미만에 있는 노인 빈곤층의 취업률은 2013년 34.5%로 나타나 2006년 31.8%에서 2.9%p 상승한 반면, 노인 1인가구 빈곤층의 취업률은 동기간 1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빈곤이 실업으로 인한 빈곤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일 자리의 질이 낮은 곳에 취업함으로써 지속되고 있으며, 일하고 있는 노인 빈곤층이 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노인(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체	전 체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1인가구		40.9	41.1	41.4	45.0	45.4	45.0	47.8	47.8
65세 이상 고령층	전 체	65세 이상	42.8	43.6	44.1	45.9	46.3	47.6	47.2	48.1
		55~64세	19.2	18.8	20.2	19.2	20.6	18.3	16.2	16.3
	1인가구	65세 이상	70.6	71.3	70.1	76.3	76.0	75.2	76.5	74.0
		55~64세	40.5	40.7	42.4	40.3	46.1	44.5	36.9	35.0

주 : 1)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수준이 주어진 빈곤선 이하인 인구 비율임(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인구/총 인구)×100.
 상대적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중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 비율임.
 2)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표 10〉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의 취업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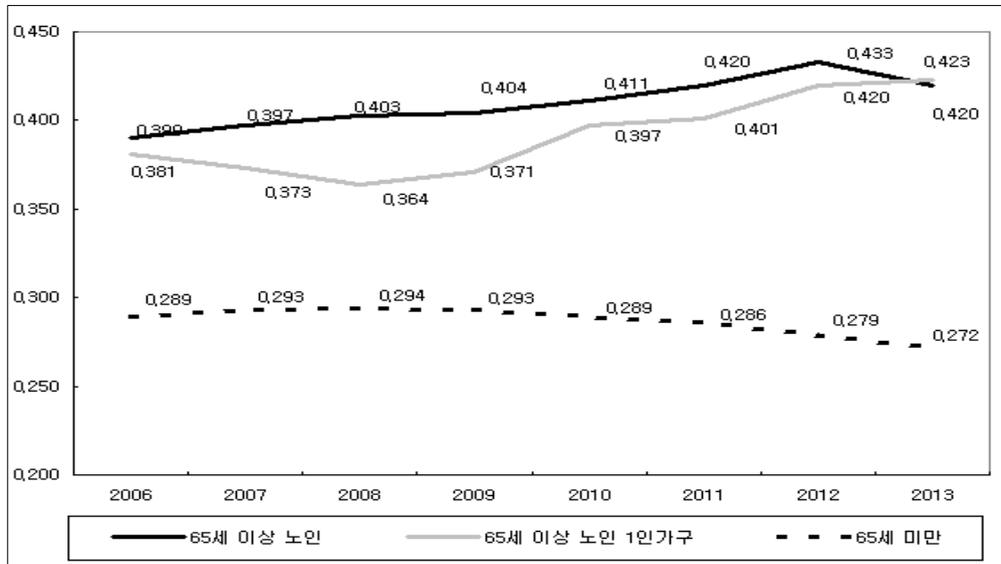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5세 이상	31.6	31.6	28.4	29.0	33.6	35.1	32.4	34.5
65세 이상 1인 가구	16.7	17.6	14.6	15.8	22.9	21.2	21.5	29.2

주: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앞에서 노인과 노인 1인가구의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을 비교하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노인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어느 수준일까?. 지니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지니계수는 0.302,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인구의 지니계수는 0.272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지니계수는 0.420으로 나타나 노인의 소득불평등도가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의 지니계수가 0.423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미취업상태인 노인 1인가구의 지니계수는 0.440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65세 이상 노인의 지니계수 추이



주: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IV. 맺음말

생산가능인구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의 고용구조는 임시직 증가율이 상용직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늘고 있다.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노인의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인 10명당 약 5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이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임금근로자의 76.5%가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나 경제 전체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 임금근로자 중 61.2%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이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10분위별 최하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증가하고 있고, 두 소득층 간에 소득10분위배율이 확대되고 있어 65세 이상 연령층 안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수준이 소득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노인 1인가구에 노인빈곤이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일하는 노인빈곤층의 증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연령층은 빈곤율도 높은 뿐 아니라 이들 내부의 소득격차나 소득불평등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혜택을 받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쌓은 주된 경력이 새 일자리에 활용될 수 있는 노인 대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KLI**

<참고문헌>

- 반정호 외(2013),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 『노동정책연구』 13(1), 한국노동연구원.
- 윤희숙 외(2013),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분포 현황』, 『KDI 정책포럼』 254, 한국개발연구원.

〈부표 1〉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27.5	26.7	26.8	29.3	27.0	26.7	26.5	27.1	24.0	26.2	25.1	24.5
30세 미만	30.8	29.0	28.8	30.8	25.4	25.8	25.2	28.1	25.1	28.2	27.2	28.5
30~39세	16.2	16.8	16.8	18.2	17.0	15.6	15.0	14.6	12.2	12.9	11.9	10.8
40~49세	25.7	24.6	24.5	27.3	26.2	26.0	25.4	24.5	20.4	21.5	19.9	18.6
50~59세	36.2	33.6	34.6	37.7	35.5	34.9	34.9	34.3	30.3	33.0	30.3	27.9
60~64세	60.2	58.8	59.2	63.4	59.7	57.5	58.9	57.8	54.0	57.4	55.8	50.5
65세 이상	78.7	77.2	73.8	76.6	71.9	77.8	77.4	79.8	77.5	78.0	78.3	76.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2〉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4.9	5.8	8.1	9.4	12.2	12.1	13.8	12.8	12.0	9.9	11.8	12.6
30세 미만	4.6	5.8	8.4	9.1	10.1	10.9	11.4	12.1	11.3	9.5	12.4	13.7
30~39세	2.2	2.8	4.0	4.7	6.6	6.0	6.7	5.6	4.8	3.7	4.3	4.3
40~49세	3.1	3.9	5.5	6.9	10.1	10.1	11.6	9.9	8.5	6.5	7.5	7.8
50~59세	7.0	8.2	10.6	12.6	16.9	15.3	18.7	15.8	15.2	11.6	13.6	13.6
60~64세	19.3	20.3	28.6	32.0	36.9	35.3	40.3	35.9	32.8	27.5	31.1	28.3
65세 이상	38.5	37.4	44.1	45.5	54.2	57.1	63.7	61.9	60.9	53.6	55.4	6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